

### 동물원에서 죽은 동물위한 천도제

조계종중심서 서울대공원서

동물원에서 생을 마감한 동물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천도제가 열린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와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는 4월 5일 오후 1시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동물원 내 위탁에서 동물영혼 천도제를 봉행한다.

중앙신도회 이상근 사무총장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 수많은 동물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천도제를 봉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천도제가 열리는 4월 5일은 식목일이자 지정제일이다.

천도제는 분향, 헌화, 천도묵념에 이어 천도법문과 고유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천도제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과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02)733-7277 **여수령 기자**

###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범불교 지지대회 열린다

종단협 등 29일 조계사에서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범불교 지지대회가 3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강원불교연합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지역인 강원도에서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함을 물론 국가 위상 재고, 경제 발전 등에 큰 힘이 되기 위해 열린다.

행사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대독하는 대통령 치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지관 스님의 법어, 한승수 유치위원회 위원장과 강원불교연합회장 정념 스님의 축사, 태고종·천태종 총무원장 및 진각종 불리원장의 격려사,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의 유치 발원문 낭독, 유치기원 서명 및 점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 ‘반쪽 귀환’ 있을 수 없는 일

조계종 석가탑 출토유물 일괄 반환 입장 고수, 국·박 ‘명령해제’ 절차 진행

“반쪽짜리 귀환은 있을 수 없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포함한 석가탑 내 출토유물이 일괄 반환되어야 한다.”

조계종의 석가탑 내 출토유물(국보 제126호) 반환요청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홍남)이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의 지물류(紙物類)를 제외하고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계종은 “일부만 반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괄 반환을 요청하고 나섰다.

불교사가 소유주도 명기돼 있는 석가탑 내 출토유물은 1966년 발견된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에 위탁 보관돼 온 문화재로, 3월 26일 불교중앙박물관이 개관함에 따라 조계종이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은 불교중앙박물관의 시설 미비와 보존·연구를 이유로 이관을 거부하다 조계종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자 결국 ‘반쪽짜리 귀환’을 결정했다. 석가탑 내 출토유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



국립중앙박물관이 석가탑 출토유물(국보 제126호)에 대해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을 제외하고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3월 26일 해당 유물의 전시부스를 비워둔 채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식을 봉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박재원 기자

인쇄물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비단에 쌓인 종이문지(목지서편) 등을 반환 목록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22일 국립중앙박물관과 실무자회의를 열고 “해당 유물이 빠짐없이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3일 현재 “석가탑 유물을 이관 받은 것은 1967년 문교부장관의 ‘문

화재이관 명령’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조계종으로의 이관을 위해서는 위 명령을 해제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문화재청에 이관에 관한 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26일 이전에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불교중앙박물관 내 석가탑 출토유물 전시관은 비워둔 채 개막식을 진행하게 된다.

조계종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갖는 정보로서의 가치 외에도, 문화재 위탁 기관이 보존이나 연구가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 때문이다. **여수령 기자**

### 불교 리더스 포럼 개최

불교아카데미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사불교 아카데미(원장 이혜숙)는 불교계 지도자 등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참여 불교 리더스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오후 7시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린다.

포럼은 △4월 3일 장명국 내일신문 대표- ‘21세기와 4차원 경영’ △5월 1일 박범훈 중앙대 총장- ‘불교 음악의 세계와 문화경영 리더십’ △6월 5일 수경 스님(화계사 주지)- ‘대중신행결사운동의 역사와 한국 불교 확산의 과제’ △7월 3일 엄홍길 씨(산악인)- ‘엄홍길의 정상경영학’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02)2278-3417 **김주일 기자**

### 동방불교대 ‘각종학교’ 인가 추진

신임 학장 자월 스님 “6월말 교사 이전”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이 6월경 새 교사로 이전하고 각종학교 인가 추진에 나선다.

3월 24일 동방불교대학 학장으로 취임한 자월 스님은 “현재 10억원의 재정을 확보했으며 4월까지 10억 원을 더 모아 총 20억원의 재원으로 6월까지 새 교사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각종학교 인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종단의 미래는 인재양성에 달려있다”며 “반드시 각종학교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 유아교육, 간호 등의 학과 충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4월중 교육에 관심 있는 종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열고 새 이사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 “불사 관련 규제법령 시정해야”

실승, 세미나서 강력 주문

‘규제위주의 각종 법령 때문에은 전지 못한 불사를 범람시켜 사람 운명에 치명적인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3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열린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대표 성관·효립) 제3차 생활경영연구 세미나에서는 불합리한 규제 위주의 법령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규제 위주의 법령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규제 위주 중심의 법령에 의한 피해 사례와 문제점 분석 △전통 사찰보존법, 개발제한법 등 사찰 관련 국가 법령 분석 △사찰 운영 활성화 위한 종단 내 제도 개선안 등이 집중 토론됐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 법안 스님은 “종단 차원의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주일 기자**

### “하와이서 영어공부해요”

제4회 하와이 영어연수·문화체험캠프

현대불교신문사는 제4회 하와이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캠프 프(http://hompj.buddhapia.com/homepy/hawaii)를 개최합니다.

- 참가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간: 7월 26일(목)~8월 14일(화)(19박 20일)
- 참가비: 280만원(여권, 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선착순 40명
- 참가신청: 1차= 3월 15일~ 4월 20일  
2차= 5월 1일~ 5월 30일(참가비 5% 인상)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하와이 무량사
- 후원: (재)보덕학회

- 주요프로그램
  - 영어연수: 본 캠프에서 3년간 영어교육을 담당할 하와이주립대 영어 교육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브라이언, 데니 선생님과 총 60시간 수준별 강의 및 시장에 나가 불건을 사고 현지인들과 영어로 대화.
  -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춤 관람, 비슈박물관 관람 및 홀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라나 궁전 탐방.
  - 역사체험: 한인이민의 땅 서린 사랑수수농장 방문, 세계대전 격전지 진주만 탐방, 한국전쟁 참가 희생자들이 문헌 편지볼 국립공원 참여
  - 자연체험: 와이키키해변 수영, 다이아몬드 헤드 등반, 팔리바바산, 와이메아공원.
  - 문화특강: 영어캠프 현지 총책임자인 하와이주립대 스피치커뮤니케이션과 김민선 교수가 매일 한 시간씩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해 ‘국제화 시대 다양한 문화이해 강화’ 실시.
- 참가문의: 박병용 팀장 (02)720-1868/010-6318-1976



### “한번 와 보세요...캠퍼스에 법당 있어요”

새 학기를 맞아 각 대학 동아리들이 신입회원 모집을 시작한 가운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도 신입회원 모집에 나섰다. 3월 19일 숙명여대 불교학생회 회원들이 교

내에서 신입생들에게 자체적으로 제작한 홍보물과 초콜릿을 나눠주고 있다.

**글·사진=박재원 기자**

### “보수비 전용 아니다”

MBC ‘뉴스24’ 정정보도

“지난 2월 20일 ‘뉴스24’에서 보도한 월정사 문화재 보수 관련 내용 중 석탑복원에 지원된 국가예산이 건물복원사업에 전용되지 않은 것으로 바로 잡습니다. 또한 팔각구층 석탑은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는 등 문화재청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으며, 문화재청이 지원한 예산은 스님 숙소 공사가 아니라 사별당의 외부 기와보수에 집행된 사실이 확인 됐습니다.”

MBC가 3월 16일 마감뉴스인 ‘뉴스24’를 통해 ‘월정사 문화재 보수 지원비 유용’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이것만으로도 훼손된 명예를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것과 방송사의 솔직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미흡하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 공 고

### 선암사 수습대책위에서 선출한 주지는 원천무효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에서는 선암사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 끝에 그 대안으로 총무원을 대표하는 스님과 수습대책위원장 그리고 선암사 전, 현주지 등 4인의 의견을 조율하여 대응적 차원의 화합과 원만한 사태수습을 위한 단일안을 성안하여 총무원에 제출하고 합의된 내용대로 시행키로 하였으나 수습대책위원장 스님은 현주지와는 단 한번의 의견조율도 없이 일체무시하고 사태수습을 위한 조율은 커녕 임의대로 재적승 전산대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또한 이번 선암사 사태로 인하여 종단에서 징계되어 정적된 스님을 선암사 주지로 선출하는 등의 상식밖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총무원으로부터 2월 8일자 공문(태고총무 제21-138호) 본인이 보낸(선암 2007-01003호의 공문참조)에 보면 선암사 수습대책위 업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선암사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위의 4인의 합의안이 나와야 하고 전 주지는

현주지에게 인수인계가 선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업무 진행과정으로 또한 새로운 주지를 선출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번 선암사 사태에 관련되어 징계된 당사자는 선암사 소임직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 위 합의안과 피선거권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선암사 재적승 총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선암사 주지 직신식을 한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암사 수습대책위는 선암사 사태해결을 위한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뿐더러 선암사를 더욱 분란과 반목으로 몰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종단의 총무원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재적승총회는 물론 종단으로 부터 이번사태로 징계된 자가 주지로 선출되는 이러한 해괴한 사태에 대하여 현직 주지로서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선암사 수습대책위에서 선출한 주지는 원천무효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주지 임승조

• 후원 : 전국태사모승가일동 · 전국 태사모불자일동 · 선암사신도일동